

금리 고공행진 속 대출 질주... '영끌' 가고 '마통' 왔다

가계대출 금리 두달새 0.2%p 뛰어
상단 6.5% 넘어...2년5개월만 최고
증시 호황에 신용대출 창구 대거 몰려

세계적 금리 인하기 종료 전망에 최근 중동 사태까지 겹쳐 가계대출 금리가 불과 두달 새 0.2%포인트(p)나 뛰었다.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아 주택구입)·빚투(대출로 투자)족의 부담이 커질 수 밖에 없지만, 금리 상승이 대출 증가세를 뚜렷하게 진정시키지 못하고 있다.

주가가 출렁이자 이를 기회로 여긴 수요가 마이너스통장(신용한도대출·이하 마통) 등 신용대출 창구로 대거 몰려들기 때문이다.

◇신용대출 금리도 1년3개월만에 최고 수준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13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250~6.504% 수준으로 집계됐다.

지난 1월 16일(연 4.130~6.297%)과 비교해 약 두 달 사이 상단이 0.207%포인트(p), 하단이 0.120%p 높아졌다.

고정금리의 주요 지표인 은행채 5년물 금리가

같은 기간 3.580%에서 3.880%로 0.280%p나 올랐기 때문이다.

은행채 등 시장금리는 지난해 하반기 이후 국내외 기준금리 인하 가능성이 줄면서 꾸준히 오르다가 연말·연초 다소 진정됐지만, 최근 중동 사태 발발과 함께 다시 상승하는 추세다.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A은행의 내부 시계열을 보면, 현재 금리 수준은 2023년 10월 말(6.705%) 이후 약 2년5개월 만에 최고 기록이다.

신용대출 금리는 연 3.930~5.340%(1등급·1년 만기 기준)로, 역시 2개월 전보다 하단이 0.180%p 높다. 지표인 은행채 1년물 금리가 같은 기간 0.200%p 뛰었다.

가장 높은 금리를 적용하는 B은행의 내부 시계열상 2024년 12월 말(6.680%) 이후 약 1년3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주택담보대출 변동금리(신규 코픽스 기준·연 3.850~5.740%)의 상·하단도 같은 기간 각 0.090%p, 0.106%p 상승했다.

◇"신용대출 상당부분 증권사로...저가매수·마진콜·공모투자자 겹쳐"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지난해 7월 이후 8개월째 2.50% 수준에 묶여있지만, 시장금리는 사실상 지난해 하반기 이미 인하 사이클(주기)을 마치고 상승기에 진입했다는 게 은행권의 해석이다.



가계대출 금리가 두달 사이 0.2%포인트나 상승한 가운데 15일 서울 시내 한 은행에 주택담보대출 관련 현수막이 붙어있다. 이날 금융권에 따르면 KB국민·신한·하나·우리은행의 13일 기준 주택담보대출 혼합형(고정) 금리(은행채 5년물 기준)는 연 4.250~6.504% 수준으로 집계됐다. /연합뉴스

금리 상승 사이클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자 부담 등에 디레버리징(차입 상환·축소)이 시작되지만, 최근 은행 대출은 주식시장 변동성 확대 등과 얽혀 오히려 신용대출을 중심으로 늘어나

는 추세다.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의 12일 기준 전체 가계대출 잔액(766조5천501억원)은 2월 말보다 6천847억원 불었다.

주택담보대출은 정부의 각종 부동산 규제로 8천302억원 뚫겼지만, 신용대출이 무려 1조4천327억원이나 급증했다. 이 증가 폭이 월말까지 유지될 경우, 2021년 7월(+1조8천637억원) 이후 4년8개월 만에 최대 기록이다.

특히 실제 사용된 개인 마통 잔액이 이달 들어 서민 1조3천114억원(39조4천249억원→40조7천362억원) 뛰었다. 금융 당국의 빚투 경고 등에도 불구하고, 증가 폭은 1주일 전인 5일 기준 1조2천979억원보다 더 커졌다.

마통 잔액 규모는 역대 월말과 비교해 2022년 12월 말(42조546억원) 이후 3년 2개월여만에 가장 크고, 12월간의 통계지만 증가 폭도 월간 기준으로 2020년 11월(+2조1천263억원) 이래 5년 3개월 여만에 최대 기록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최근 은행 신용대출 증가가 증권사 이체가 주요 원인"이라며 "최근 코스피·코스닥 지수가 급락할 때 하루 증권사로 이체가 1천500억원을 넘기도 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여기에는 저가 매수 수요뿐 아니라 증권사 신용 공여 등으로 주식을 샀다가 마진콜(추가증거금 요구)을 받고 마통 등으로 자금을 충당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최근 기업공개에 나선 신규 상장주식과 관련한 공모 투자 수요도 더해졌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한전-조폐공사 '감사 전문성 강화' 협약

AI·IT 기반 기법 역량 고도화 기대

한국전력 감사실은 15일 "지난 12일 한국조폐공사 감사실과 감사 전문성 제고와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사진> 이번 감사업무 협약은 전력 공급, 화폐 제조 등 국가 경제의 핵심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공기업 간 감사업무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긴밀한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감사 전문성 및 품질 향상을 위한 정보·기술 교류 ▲내부통제 및 부패예방 역량 강화를 위한 실무회의 운영 ▲AI, 빅데이터 최신 IT 기술을 활용한 감사사

례·기법 공유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하기로 했다.

양 기관은 앞으로도 후속 실무회의를 통해 감사사례 상호 제공, AI기반 감사 기법 공유 등 업무 교류를 심화할 수 있게 추진하고 내부통제 강화를 위한 구체적인 협력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협약식에 참석한 한전 전영상 상임감사위원은 "공공기관 간 감사역량을 결합해 급변하는 감사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감사 품질과 효율을 높여 국민이 체감하는 투명하고 공정한 공공감사 구현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임채만 기자

쿠광 로켓서 '중장년층 이탈' 현실화

올들어 두 달간 120만명 '탈광'

구매력 강한 40-60대 등 돌려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시장에서 지난 수년간 이어진 쿠팡의 독주 체제에 균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쿠팡은 지난해 매출 49조원이라는 역대 최대의 외형 성장과 이익을 거뒀지만,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경영진의 대응에 실망한 핵심 소비층의 이탈로 로켓 성장에 비상등이 켜진 상태다.

특히 구매력을 갖춘 40대 이상 중장년층의 이른바 '탈광'(쿠팡 회원 탈퇴)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이들은 '로켓 성장'의 사실상 핵심 엔진이었다는 점에서 쿠팡에 빼어난 지점이다.

이는 네이버(NAVER)와 신세계그룹 등 경쟁사에 기회로 작용하며 쿠팡이 철옹성처럼 강자로 군림했던 이커머스 시장 판도가 예측하기 어려운 격변의 시기로 접어들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다.

쿠팡의 위기는 데이터로 증명됐다.

쿠팡Inc가 지난 2월28일 공시한 작년 4분기 영업이익은 약 115억원(800만 달러)으로 전년 동기 대비 97%나 급감했다.

지난해 말 발생한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고를 수습하기 위한 마케팅비 투입과 조사 비용 등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이상 신호는 이용자 지표에서도 감지됐다.

연합뉴스가 15일 입수한 아이지아이웍스 모바일인덱스 자료를 분석한 결과 쿠팡의 전체 월간 활성 사용자 수(MAU)는 작년 12월 3천484만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달 3천364만명으로 두 달 만에 약 120만명이 이탈했다.

더욱 주목할 부분은 연령대별 결제 데이터다. 전 연령대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사용자 수가 감소했으나, 40-60대에서 감소세가 눈에 띈다.

가계 소비의 주도권을 쥐고 식품품과 가전 등 고정적이면서도 고단가의 구매층을 형성하기 때문이다.

모바일인덱스 데이터에 따르면 쿠팡의 전체 월간 신용·체크카드 결제추정액은 작년 11월 4조4천735억원에서 지난달 4조220억원으로 약 10.1%(4천515억원) 줄어들었다.

이 중 50대는 같은 기간 9천704억원에서 8천502억원으로 약 12.4%(1천202억원) 줄어 감소액이 가장 많았다.

이어 40대는 약 9.5%(1천167억원) 줄어 뒤를 이었으며, 60대 이상은 6.0%(339억원) 감소했다.

석 달 새 40대 이상 중장년층에서만 결제액이 9.8%(2천710억원) 증발한 것으로 전체 감소액의 약 63%를 차지하며 매출 감소의 결정타가 됐다.

한 번 정착하면 체널을 잘 바꾸지 않는 연령대가 이렇게 등을 돌렸다는 것은 쿠팡에 '적신호'로 해석할 수 있다.

30대 결제액도 9.0%(947억원), 20대 이하는 16.8%(609억원)가 각각 줄어들었다. /연합뉴스

로또복권

<제 1215 회>

등위	당첨금	당첨번호
당첨번호 13 15 19 21 44 45 /보너스 39		
1등	1,998,542,133	6개 숫자 일치
2등	70,124,286	5개 숫자+보너스 숫자 일치
3등	1,708,156	5개 숫자 일치
4등	50,000	4개 숫자 일치
5등	5,000	3개 숫자 일치

현대인들의 면역력 증진 뿐 아니라 장 건강,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린 프리미엄 베라골드 400

알로에겔 Green Premium Vera Gold

알로에 본고장인 미국산 유기농 알로에베라겔 즙액 400%

면역다당체 하루 섭취량 300mg

그린알로에 건강기능식품은 단 1%도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제조사: 코스맥스엔비티(주) ■유통전문판매원: (주)그린알로에 ■소비자상담실: 080-234-6588



그린 알로에